

중1-1  
국어  
천재(노)

## 2026 중1-1 국어 천재(노) | 1(2) 소나기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상 출제 유형

<소나기>에서는 서술자의 특징과 인물 제시 방법을 묻는 문제, 배경과 복선의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와 같이 소설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소나기>의 서술상의 특징과 함께 소설 갈래의 특징을 잘 정리해 둬야 합니다. <소나기>는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소설 작품으로, 서정적인 문체와 상징적인 소재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문체상의 특징과 소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년은 ⑦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네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잡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⑧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여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나)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 낸다. ⑨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 책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쪽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⑩발돋움을 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다) 저쪽 갈밭머리에서 ⑪갈꽃이 한 몸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 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⑫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라)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속에 손을 잡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겹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짚었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찢찔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⑬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 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중략)

(마)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솟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 1.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에 주목하며 읽는다.
- ③ 문체와 표현 기법에 주목하며 읽는다.
- ④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읽는다.
- ⑤ 숨겨진 복선을 찾아 사건을 예측하며 읽는다.

### 2. ④와 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④는 소녀의 소년에 대한 관심을, ⑤는 소년의 소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④는 소녀의 소년에 대한 원망을 ⑤는 소년의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④는 소녀의 소년에 대한 기대를 ⑤는 소년의 소녀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④는 소녀의 소년에 대한 서운함을, ⑤는 소년의 소녀에 대한 궁금함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⑤ ④는 소녀의 소년에 대한 답답함을, ⑤는 소년의 소녀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3. 윗글에 드러난 '소년'과 '소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은 검게 탄 피부를 소녀는 흰 피부를 가졌다.
- ② 소년은 소극적인 성격을 소녀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
- ③ 소년은 소녀가 개울가에 나타나지 않자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다.
- ④ 소녀는 소년과 친해지고 싶어 징검다리에서 소년이 다가오길 기다렸다.
- ⑤ 소년은 소녀를 따라 하던 행동을 소녀에게 들키자 당황하여 도망쳤다.

### 4. 윗글의 ㉠~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농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 소년이 소녀와 처음 만나는 장소이다.
- ③ ㉢: 소년이 느낀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 ④ ㉣: 농촌의 따뜻한 분위기를 강화하는 소재이다.
- ⑤ ㉤: 소년이 느낀 당혹스러운 감정을 고조시키는 소재이다.

### 5. 윗글과 같은 유형의 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②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③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④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⑤ 글쓴이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읽는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소녀의 걸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여기 참외, 맛있니?” / “그럼, 참외 맛두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 “하나 먹어 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 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밑 건넨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적깨운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 “아, 맵고 지려.” / 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 “참 맛없어 못 먹겠다.”

⑦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는데. 난 보랏빛이 좋아! …… 근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반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풋한 보조개를 떠올리며. / 다시 소년은 꽃 한 옴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 보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코뚜레도 끼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 쥐고 등을 긁어 주는 척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A]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심리를 주로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향토적 배경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인 문장과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의 몰입을 돋우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전개에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7. ⑦을 통해 소년의 심리를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년은 자신이 뽑아 온 ‘무’를 소녀가 맛이 없다고 하자 서운한 마음에 ‘무’를 팽개쳐 버렸다.
- ② 소년은 실망한 소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무’도 맛이 없다며 팽개쳐 버렸다.
- ③ 소년은 소녀와 친해지려고 ‘무’를 집어 던진 소녀의 행동을 따라했다.
- ④ 소년은 덜 익은 ‘무’가 맛이 없어 ‘무’를 팽개쳐 버렸다.
- ⑤ 소년은 남의 밭의 ‘무’를 몰래 뽑아 온 것이 들통 날까 두려워서 ‘무’를 팽개쳐 버렸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 ② 작품 속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 ③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⑤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9. <보기>는 ‘소년’의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보기&gt;

가영: (가)에서 소년이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데도 소녀를 따라간 것을 보니, 소년은 소녀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나영: (나)에서 소년이 ‘무’를 먹는 방법을 보여주는 걸 보니, 소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다영: (다)에서 소년이 소녀를 뒤따라 달리지 않는 걸 보니, 소년은 소녀가 산에 가는 건 싫어하는 것 같아.

라영: (다)에서 소년이 꽃을 꺾어 소녀에게 준 것을 보니, 소녀를 향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마영: (라)에서 소년이 송아지를 올라타는 걸 보니, 소녀에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 |                            |                            |                            |
|----------------------------|----------------------------|----------------------------|
| <input type="radio"/> ① 가영 | <input type="radio"/> ② 나영 | <input type="radio"/> ③ 다영 |
| <input type="radio"/> ④ 라영 | <input type="radio"/> ⑤ 마영 |                            |

10.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묘사를 바탕으로 소년의 감정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 ② 소년은 송아지를 타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소년은 소녀의 모습을 하나의 큰 꽃묶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소년은 송아지는 타는 일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
- 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소년이 보는 소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사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뭇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고 가 비를 **㉡** 그을 수밖에.

(나)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 우그러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다) **㉤**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짙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혔다. 걷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그려안았다. /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라) 그날도 소년은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둑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소년은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앉았다.” /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땜에?” /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 다 낫냐?” / “아직 두…….” /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 그날 참 재밌었어. ……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

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년은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 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네게 업힌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 소년은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마)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허, 참, 세상일두…….” (중략)

“윤 초시 댁두 말이 아니여. ⑥그 많던 전답을 팔아 버리구, 대대로 살아 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중략)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꽈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번 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애서는 윤 초시네두 대가 끊긴 셈이지. ……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구…….”

###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을 추수철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풍요롭고 흥성스러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서울 소녀와 농촌 소년을 대비하여 도시에 비해 순수한 농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소년과 소녀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소년과 소녀가 친해지는 과정을 소년과 소녀의 태도가 역전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윤 초시 댁이 몰락해 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나기가 오고, 그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보랏빛으로 풍경의 색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비가 간 후에는 쪽빛으로 표현하여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졌음을 후각과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순순히 업히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 소년과 소녀의 역전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13. 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는 옷이다.
- ② 소년과 소녀가 친해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옷이다.
- ③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넜을 때 생긴 얼룩이 있는 옷이다.
- ④ 소녀가 죽기 전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부탁한 옷이다.
- ⑤ 소년과 소녀가 친해지던 장면에서 소녀가 입고 있던 옷이다.

### 14. (라)에 드러난 ‘소년’과 ‘소녀’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   | <u>소년</u> | <u>소녀</u> |
|---|-----------|-----------|
| ① | 반가움       | 아쉬움       |
| ② | 궁금함       | 호기심       |
| ③ | 뿌듯함       | 설렘        |
| ④ | 걱정        | 호기심       |
| ⑤ | 부끄러움      | 수줍음       |

### 15. ①~⑤의 뜻풀이로 바른 것은?

- ① ㉠: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
- ② ㉡: 비를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리다.
- ③ ㉢: 물체의 거죽이 우글쭈글하게 주름이 잡히며 줄어들다.
- ④ ㉣: 정도나 분량이 적게.
- ⑤ ㉤: 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패어 들어간 곳.

### 16. ⑥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천벽력(青天霹靂)
- ② 호사다마(好事多魔)
- ③ 새옹지마(塞翁之馬)
- ④ 화불단행(禍不單行)
- ⑤ 금상첨화(錦上添花)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 줄거리) 개울가에서 처음 만난 소년과 소녀는 산에서 함께 놀며 점점 친해진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소년과 소녀는 소나기를 만나 원두막으로 피하지만 기울고 끊어진 원두막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 놓은 수숫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의 수숫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그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됐다. 앞에 나았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A) 그 바람에 소녀가 앓고 있는 꽂통음이 우그러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나)

도랑이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혔다. 걷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그려 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그다음 날은 소녀의 모양이 뵈지 않았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매일 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봄도 뵈지 않았다.

(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겟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니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라)

“윤 초시 댁 두 말이 아니여.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구. 대대로 살아 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구…….”

“어쩌믄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애서는 윤 초시네 두 대가 끊긴 셈이지. ……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구…….”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소설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사건이 ‘개울가, 징검다리, 갈밭’ 등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므로, 배경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②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므로, 인물의 감정 변화에 주목하며 읽어야 한다.
- ③ <소나기>는 섬세한 묘사와 감각적인 표현, 비유와 상징의 사용이 두드러진 작품이므로, 표현 기법과 문체에 주목하며 읽어야 한다.
- ⑤ 소녀의 상황과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인 ‘꽃묶음’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2. 정답 ⑤

ⓐ는 소녀의 소년에 대한 관심, 기대, 서운함, 답답함, 원망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는 소년의 소녀에 대한 관심, 그리움, 걱정, 궁금함을 의미하는 소재이나 원망을 나타내는 소재는 아니다.

- ①, ②, ③, ④는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3. 정답 ③

소년에게 섭섭함과 답답한 마음을 느낀 것은 (나)의 소녀이다. 소년은 (다)에서 소녀에 대한 궁금함과 함께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 ① (가)에서 소녀가 ‘흰 피부’를 가졌음을, (라)에서 소년이 ‘검게 탄’ 피부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소년은 소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소극적 성격을, 소녀는 소년에게 조약돌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졌다.
- ④ (가)에서 소녀는 소년과 친해지고 싶어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소년이 다가오길 기대하며 기다렸다.
- ⑤ (라)에서 소녀가 징검다리에서 했던 행동을 따라 하던 소년은, 소녀가 다가오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소녀가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도망쳤다.

다.

### 4. 정답 ③

소년이 갈밭으로 들어간 소녀를 찾기 위해 한 행동이다. 따라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궁금증을 드러내는 동작으로 볼 수 있다.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는 소재는 아니다.

- ① ‘개울가’는 <소나기>의 배경이 농촌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징검다리’에서 소년과 소녀는 처음 만나, 서로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④ ‘갈꽃’은 이 소설의 배경인 ‘농촌’의 따뜻한 분위기를 강화하는 소재이다.
- ⑤ 소년이 소녀를 따라 하던 자신의 행동을 소녀에게 들키자 놀란 마음에 그 자리를 벗어나던 중에 흐른 ‘코피’는 소년의 당혹감을 고조시키는 소재이다.

### 5. 정답 ③

윗글은 인물 간의 관계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설’이므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논설문’이다.
- ②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수필’이다.
- ④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설명문’이다.
- ⑤ 글쓴이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논설문’이다.

### 6. 정답 ④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소년과 소녀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가을 농촌이다. 농촌이라는 향토적 배경을 통해 서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짧고 시적인 문장으로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고,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몰입을 돋우고 있다.

⑤ ‘소나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와 짧게 끝나 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7. 정답 ③

소년은 ‘무’가 얼마나 맛있는지 소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무’를 뽑아 왔는데 소녀가 맛이 없다고 하자 쑥스럽고 무안해서 ‘무’가 맛이 없는 척을 했다. 또한 소년은 소녀와 친해지고 싶어 ‘무’를 집어 던지는 소녀의 행동을 따라 했다.

① 소년이 소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소년이 소녀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소년은 ‘무’가 맛이 없는 척하고 있다. 맛이 없어 ‘무’를 집어 던진 것은 아니다.

⑤ 소년이 두려움에 ‘무’를 집어 던진 것은 아니다.

#### 8. 정답 ③

윗글은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① 해당 선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해당 선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해당 선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 중, 초점 화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윗글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9. 정답 ③

(다)에서 소년이 소녀를 뒤따라 달리지 않는 모습은, 소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소년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년은 소녀와 함께하는 산으로 가는 길을 즐거워하고 있다. 소녀가 산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① 소년은 집안일을 도와야 했지만, 소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소녀를 따라갔다. 이는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과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소년은 소녀에게 ‘무’를 먹는 법을 보여주고, 소녀는 이를 따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이 서울

에서 온 소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④ 소년은 소녀가 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꽃을 꺾어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네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이 소녀를 향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소년은 송아지를 올라탄 자기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소녀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녀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였던 것과 달리 소녀가 따라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년이 소녀에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 10. 정답 ④

[A]에서 소년은 송아지는 타는 일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일이라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A]는 송아지를 타며 느끼는 소년의 감정을 소년이 바라보는 소녀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바탕으로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 소년은 송아지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A]에서 소년은 소녀의 흰 얼굴, 분홍 스웨터,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A]에서 소년이 보는 소녀의 모습은 ‘흰’, ‘분홍’, ‘남색’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 11. 정답 ④

개울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소녀는 적극적인 태도를, 소년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소년과 소녀가 산으로 놀러 갔을 때는 소년이 ‘등을 돌려 대’자 소녀가 ‘순순히 업’하는 등 소년과 소녀의 태도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소년과 소녀가 친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① 가을의 농촌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아, 작품의 서정성과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풍요롭

고 흥성스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소녀와 소년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소녀와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순수한 농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이들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소나기>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어린아이인 서술자가 윤 초시 댁의 몰락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2. 정답 ③

(다)의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에서 비가 간 후의 하늘을 ‘쪽빛’이란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가)와 (나)에서 소나기가 오고, 그치는 모습을 의성어와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② (가)의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의 풍경을 ‘보랏빛’이라는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에서 소녀는 소년의 냄새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에 온기를 느끼고 있다. 이는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졌음을 후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⑤ (다)의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혔다.’에서 소녀가 소년에게 순순히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처음의 적극적인 소녀와 소극적인 소년의 태도가 역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정답 ②

‘분홍 스웨터’는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는 옷이다. 소년과 소녀가 친해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소재는 아니다.

- ①, ③, ④, ⑤ ‘분홍 스웨터’에 옮은 진흙물은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넜을 때 생긴 것이며, ‘분홍 스웨터’는 소녀가 소년과 친해지던 산으로 나들이 가는 장면에서 입고 있던 옷이다. 따라서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있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에서 소녀는 이 옷을 입혀서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 14. 정답 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는 모습에서, 소녀가 수줍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년의 얼굴이 확 달아오름에서 소년이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기다리던 소녀를 발견하고, 가슴부터 두근거리는 소년의 모습에서 소년이 소녀를 반가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소녀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② 소년은 소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궁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녀가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은 (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③ 소년이 뿌듯함을 느끼거나, 소녀가 설렘을 느끼는 모습은 (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소년이 걱정을 하거나, 소녀가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은 윗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15. 정답 ②

‘그을’은 ‘굿다’의 활용형으로, 굿다의 의미는 ‘비를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리다.’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①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 ③ ‘물체가 안쪽으로 우뚝하게 휘어져 들어가다.’라는 의미이다.
- ④ ‘꽤 어지간한 정도로.’라는 의미이다.
- ⑤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이라는 의미이다.

#### 16. 정답 ④

⑥는 소녀의 가족들이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 번 겪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란 재앙은 번번이 겹쳐 옴을 이르는 말이므로, ⑥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볼 수 있다.

①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을 이르는 말이다.

③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7. **정답** ②

ㄱ. 소녀의 유언에 ‘말줄임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무리는 독자가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추측하게 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상황의 비극성을 극대화한다.

ㄴ. 소녀의 죽음에 대한 소년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김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ㄷ. 소년은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ㄹ.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의 반응이나 심리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ㅁ.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의 반응이나 심리를 보여주지 않아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녀의 유언이 생략된 것은 아니다.

①, ③, ④, ⑤는 적절한 선지가 아니다.

18. **정답** ②

‘꽃묶음’은 소녀와 동일시되거나 소년과 소녀의 추억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①, ③, ④, ⑤는 적절한 선지가 아니다.

19. **정답** ⑤

민지: 시적인 문장과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가 인상 깊게 감상할 수 있다.

소이: 배경은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소나기>에서는 가을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세희: 개울가, 산, 수수밭, 도량 등으로 공간이 변화하며,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은 사건에 신빙성을 부여하므로, 독자가 실감 나게 읽을 수 있다.

수빈: 복선은 사건에 개인성을 부여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독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시킨다. <소나기>에서 소녀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은 독자들에게 소녀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하므로, 소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진아: <소나기>는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물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직접 제시에 비해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아 독자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흥미가 떨어졌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는 적절한 선지가 아니다.

20. **정답** ②

소년과 소녀는 산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원두막에서는 비를 피할 수 없어, 소년이 덧세운 수솟단 속에서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① 소년은 소녀가 비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솟단을 날라다 덧세웠다.

③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그려 안았다.’에서 소년과 소녀의 관계가 친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라)에서 소년은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소년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구……’라고 부탁한 소녀의 유언에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소녀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1. **정답** ④

(가)~(라)는 전체 소설의 구성 중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녀와 소년이 개울가에서 처음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①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② 소년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상대적으로 소녀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전개’와 ‘위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③ 소녀의 상황과,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은 ‘위기’ 단계에서 제시된다.

⑤ 소년과 소녀가 이별한 후,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절정’ 단계에서 나타난다. 소녀가 소년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소녀의 ‘유언’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